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4. Vol 14. No 2, pp. 75-9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 분석

김유미 (부산대학교)

안창규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와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237명과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성취(집단지능검사나 학업성취 등)가 상위 5% 이내이거나, 교사가 영재로 지목한 학생들을 K-WISC-III를 실시하여 IQ지수가 130이 넘는 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친화성은 별 차이가 없었다. 둘째, 영재여아와 영재남아는 성격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요인에서 영재남아는 신경증의 하위요인인 수줍음(위축)과 개방성의 하위요인인 영리성이 영재여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외향성의 하위요인인 자극추구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나 적극성, 열정, 그리고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개방적인 사고와 높은 성취욕구와 유능감 등이 영재아동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영재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영재아동, 일반아동, 성격특성,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요인 성격검사에 기초하여 영재아동들의 성격 특성을 밝히는 본 연구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영재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편이고, 특히 5요인 성격검사의 준거를 통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재는 또래 집단과 유사한 일반적인 발달 특성뿐만 아니라 영재성과 관련된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영재는 지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한 사고 능력과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어 지적인 발달 수준은 동년배의 아동에 비해 높은 반면, 성격적·사회적 발달 수준은 또래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지적·정의적 발달 수준의 불균형, 즉 비동시성 발달(Terrassier, 1985; Silverman, 1993)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은 또래 집단에서 일반아동이 겪지 않는 영재만의 문제이다. 또 영재들의 정서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뒤섞여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영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동안 영재들의 인지적인 특성에만 주어졌던 관심을 이제는 영재의 성격이나 사회성과 같은 정의적인 특성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송인섭, 1997). 이는 영재들이 높은 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독특한 존재라는 관점과(Silverman, 1993) 그러한 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은 일반 학생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Piechowski, 1991)이 제기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Whitmore(1980)는 미성취 현상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내적·외적인 압력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면서 내적 압력으로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민감한 성격을 들었고, Vail(1990)은 용기, 쾌활, 호기심, 근면, 유머, 자신감, 소속감, 존엄 등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지적 영역 뿐 아니라 성격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 영재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에 대한 이해는 성격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재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영재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의 성차나 성역할 고정관념은 영재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imm(1986)은 미성취 치료실을 방문한 초등학생의 90%가 남학생이었으나 중학생 이상에서는 여학생들이 더 많다고 하였고, Kerr(1985)는 직업에서 여성의 미성취가 많다고 하였다. 또 문정화, 이승희(1993)는 영재 여아는 성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수동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영재 여아와 영재 남아의 성격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이에 따른 학습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영재의 잠재된 영재성의 발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재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5요인 성격검사를 실시하여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를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영재아동의 남녀별 성격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문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 아동의 성격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인 특성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영재들의 성격 특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영재의 성격 특성으로 정서적 민감성과 과도한 흥분(Davis & Rimm, 1985), 내향성,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비판,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 등을 들 수 있다(윤여홍, 2000). 이를 5요인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경증

신경증(N)은 일상생활에서 적응 정도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경증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며, 불안, 두려움, 우울,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빈번히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심약하다고 할 수 있다(안창규, 1997). 신경증 척도가 높은 개인들이 느끼는 반복적인 신경증적 긴장, 우울, 좌절, 죄책감, 그리고 자의식은 종종 비합리적인 사고, 낮은 자존감, 충동과 열망에 대한 낮은 통제력, 신체화 증상의 호소, 그리고 비효율적인 대처방식과 연관된다(McCrae & Costa, 1987). 신경증이 낮은 개인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정신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단순히 평온하고, 이완되었고, 침착하고,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MacCrae & John, 1992).

Baker(1995)는 영재청소년의 8%, 일반청소년의 9%, 특수청소년의 12%가 유의미한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면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은 영재나 특수학생들과 일반청소년이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재의 취약성으로 타인의 사회적 반응이나 피드백에 매우 예민하여 고립감이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Webb et al., 1982; Silverman, 1990). 또 영재들은 매우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Webb, 1993; 문정화, 이승희, 1993). Tong과 Yewchuk(1996)는 캐나다의 고등학교에서 39명의 학업 영재 학생과 39명의 비영재 학생들에게 Piers-Harris 어린이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영재 집단이 비영재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불안 수준을 나타내었다. Scholwinski와 Reynolds(1985)는 높은 지능을 지닌 학생들은 평균적인 지능의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고, Davis와 Connell(1985) 역시 높은 지능의 고학년 영재아동들이 동일 연령의 일반 아동들에 비해 학교에 대해 낮은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정수자(1997)는 영재아가 평재아보다 불안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2. 외향성

외향성(E)은 사교성과 지배성에서의 대인관계적인 것을 다루고, 기질적으로 높은 활동수준과 명량한 성질로 드러난다(McCrae, 1991).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며,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다. 그리고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열성적이며 낙천적이다. 또 외향성은 기업적, 사회적 적성 흥미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

(안창규, 1997). 이에 반해 외향성이 낮은 개인들은 조용하고, 서먹서먹하고, 삼가고, 수줍고, 말이 없고,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John, 1990).

영재 아동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존하며 책임감과 독립심이 강하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직화하려고 시도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재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 사이에 긴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Webb, Meckstroth, Tolan, 1982). Hollingworth(1939; Silverman, 1990)는 지배성과 영재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송인섭, 박정옥(1995)의 연구를 보면 우수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지배성 면에서 더 안정적이라고 하였으며, Richardson과 Hanawalt(1943)는 영재는 타인을 통솔하고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 요인에 대해 Belligworth(1930)는 영재가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다고 말하였고, Drake(1944)는 사교적이라고 말하였다(홍문식, 1992). 또 홍문식(1992)은 영재집단의 아동들이 평재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적이고, 집단 내에서 지배하려는 리더십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교적이며 사회성이 높다고 하였고, 정수자(1997) 역시 영재가 사교성과 대인관계의 적응 정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영재여아와 영재남아를 비교한 연구에서 Fox(1981)는 영재 남아가 영재 여아보다 활동적이고 통찰력이 있으며 외향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Tomlinson-Keasey와 Smith-Winberry(1983)는 영재 남학생이 영재 여학생보다 활동적이고 통찰력이 있으며, 외향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정화, 이승희(1993)는 영재 여아는 성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수동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하였는데, I대학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과학영재 중학생들을 연구한 배미란(2002)은 영재남학생이 영재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신경증, 친화성이 높고,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낮다고 하였다.

3. 경험에의 개방성

경험에의 개방성(O)에 관해서 Fishke(1949)에서 Hogan(1986)과 Digman(1990) 등은 이 요인을 지능의 어떤 형태와 동일시해 왔다. 그러나 Rogers(1961)와 Rokeach(1960),

그리고 Coan(1974) 등은 창의력과 지적인 흥미에 덧붙여, 구별화 되는 감정들, 심미적인 민감성, 다양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비인습적인 가치들을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요인으로 이 요인을 정의 내린다. 개방성은 성격의 차원이지만 지적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I. Q.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McCrae & John, 1992). 이를테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외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지적이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안창규, 1997).

영재는 또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훨씬 더 강하고 강렬한 정신활동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영재의 재능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강렬함이란 대단히 강한 집중력이나 능력, 힘, 또는 에너지를 말하며, 정서적 민감성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성으로 예민함을 의미한다(윤여홍, 2000). Scheinbaum(1998)은 이러한 정서적인 예민함과 강렬함의 표현인 과흥분성을 영재성과 재능을 키우는 심리학적 특성으로 정의한다.

Ehrler와 Evans(1999)는 McCrae와 Costa(1987)와 마찬가지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지능과 창조적 재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NES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60)는 영재들이 호기심이 많고 주어진 문제에 많은 해결방안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Renzulli와 Hartman, Callahan(1978)은 영재는 문제에 관한 다양한 호기심이 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급진적이고 대담한 견해를 표명하고 대담한 모험가라고 하였으며, Davis와 Rimm(1998)은 영재가 상상하기와 가장하기를 즐기며, 언어력이 우수하며, 흥미 없는 과제에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Louis와 Lewis(1992)은 영재의 특성으로 질문 빈도, 향상된 언어사용, 추상적 사고, 기억, 호기심, 창의적 놀이 등을 들고 있고, 김진희(1995)는 영재는 기억력, 관찰력, 이해력이 뛰어나고, 어휘력과 표현력이 풍부하고 광범위한 독서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산술, 계산, 추론, 적용 면에서 높은 학업성과 성취를 보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며, 상호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실로부터 일반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형태와 물체나 대상에 대한 지각 능력이 뛰어나며, 합리적, 분석적, 독창적 사고를 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Harris(2004)는 지능과 개방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Block & Kreman, 1996; Holland, Dollinger, Holland, & MacDonald, 1995)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4. 친화성

친화성(A)은 신뢰, 공감, 협동과 냉소, 무례, 적대감 등을 대비시키고 있는 영역으로 (McCrae, 1991), Digman과 Takemoto-Chock(1981)은 “호의적인 순응 대 적대적인 불복종”으로, Costa 등(1991)은 신뢰, 온순함, 그리고 순응을 포함하여, 온정과 복종을 혼합한 속성들의 집합체로 보았다(McCrae & John, 1992). 그리고 친화성의 척도는 외향성 척도와 함께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 준다(안창규, 1997).

Silverman(1994)은 영재는 솔직하고 이타적인 특성이 있으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 특성을 숨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우리들이 도덕적인 지도자들을 가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영재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 Silverman(1998)은 Drews(1972, p.3)의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인식하기 전에 가면을 걸치도록 가르침 받는다. 자기 자신의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기성세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껍질 속에 집어넣을 것을 강요받고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비정상에 대한 두려움이 영재들을 평범한 상태로 가장하게 하고, 그들과 일반 아동과 다른 점을 부정하게 하고, 비웃음으로부터 자신의 풍부한 내부세계를 숨기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Davis와 Rimm(1998)은 ‘영재아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시기부터 가치 체계와 공정성, 그리고 정의감을 발달시키며 그것을 정교화하고 내면화한다. 영재아들은 공정하고 동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 따라서 영재아들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덜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고, Walberg(1982)는 14세기에서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중 예술, 과학, 종교,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인물 200명의 아동기 특성을 조사하여, 그들의 공통적 특성은 다재다능함, 집중력, 인내력, 우수한 의사소통 기술, 보통 이상의 지능이며 또한 그들 대다수는 민감하고, 윤리적, 낙천적,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5. 성실성

성실성(C)을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관점에서 본 Tellegen(1982)는 억제력, Hogan(1986)는 신중함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Digman과 Takemoto-Chock(1981)은 성실성을 성취 의지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행동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영역으로 미리 상황에 대처하는 관점을 나타낸다. 성실성 항목은 양심에 의해 좌우되거나 부지런함

이나 철저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상 모두를 공유한다(McCrae & John, 1992).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한 조직력과 성취 욕구가 강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다(안창규, 1997).

영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기 능력을 비판하고 평가한다(Adderholdt-Elliott, 1987). 과도한 자기비판은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높게 만들며, 완벽주의 경향과 더불어 자신에 거는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의 표현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을 앓게 된다.(Webb et al., 1982; Whitmore, 1980). Davis와 Connell(1985)은 영재아동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내재적 동기와 자율적인 판단에 있어서 더 발달해 있다고 보고했다. 송인섭 등(1995)은 영재는 일반아동보다 성취성이 높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는 감정 억제와 같은 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보고했고, 배미란(2002)도 영재들은 성취욕구가 매우 높다고 하였고, Renzulli와 Smith, White, Callahan, Hartman(1975), Colangelo(1991)는 영재는 과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권위에 도전적이며,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동기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Griggs와 Dunn(1985)은 영재는 교사에 의해 동기화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또 이들은 평재보다 책임감이 높고, 조용한 학습 환경을 선호하고, 평재들과 공부하기보다는 혼자나 진실한 친구(다른 영재)와 학습하길 좋아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일반 아동은 부산 시내 3개 초등학교의 4-6학년의 아동 중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집단지능검사나 학업성취도의 결과가 상위 5%의 범위에 속하는 학생과 하위 5%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 및 교사가 영재로 지목한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이다.

영재는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6-7개월에 걸쳐 부산광역시 소재 모 영재기관에서 수학 중인 아동과 일선 초등학교의 4-6학년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성취(집단지능검사나 학업성취 등)가 상위 5% 이내이거나, 교사가 영재로 지목한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K-WISC-Ⅲ)를 실시하였다. 이 중 지능지수가 130 이상인 아동 108명을 선별, 최종적으로 영재 집단으로 편성하였다. 연구 대상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남	여	계
일반아동 N (%)	125(36.23)	112(32.47)	237(68.70)
영재아동 N (%)	65(18.84)	43(12.46)	108(31.30)
계 N (%)	190(55.07)	155(44.93)	345(100.0)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지능 특성을 K-WISC-Ⅲ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전체 지능의 평균은 136.36이었으며, 언어성과 동작성 지능지수는 각각 134.49점과 132.96점으로 언어성이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지표점수에 있어서는 언어이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처리속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지능을 소항목별로 살펴보면 어휘, 상식, 토막짜기의 순으로 강점을 나타내었고, 기호쓰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2〉 영재아동(N=108)의 지능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척도	M	SD
언어성 지능	134.49	5.64
동작성 지능	132.96	3.82
전체 지능	136.36	2.88
언어이해지표	133.28	5.95
지각조직지표	132.15	4.64
주의집중지표	130.84	7.06
처리속도지표	126.32	6.62

Brown과 Yakimowski(1987)는 영재아동과 높은 IQ 집단에서 동작성 IQ 보다 언어성 IQ가 더 높은데, 평균 능력의 학생들은 언어성 IQ와 동작성 IQ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발견했다. 또 Fishkin과 Kampsnider(1996)는 영재들이 기호 쓰기와 산수에서 가장 낮은 득점들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공통성, 이해, 어휘, 상식, 그리고 토막짜기에서 가장 높은 득점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 영재아동들은 언어성 IQ가 동작성 IQ보다 높게 나타나 Brown과 Yakimowski(198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어휘, 상식, 토막짜기의 점수가 강점으로 나타났으므로 Fishkin과 Kampsnider(1996)의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지능지수와 지표점수를 광금주와 박혜원, 김청택(2001)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다음 <표 3> 과 같다.

<표 3> K-WISC-Ⅲ의 IQ와 지표점수의 비교

척도	광금주의 영재아동(N=61)		본 연구의 영재아동(N=108)	
	M	SD	M	SD
언어성 지능	131.8	7.6	134.49	5.64
동작성 지능	123.1	10.7	132.96	3.82
전체 지능	130.6	5.6	136.36	2.88
언어이해 지표	129.3	8.6	133.28	5.95
지각조직 지표	123.8	11.6	132.15	4.64
주의집중 지표	128.0	11.3	130.84	7.06
처리속도 지표	110.9	15.3	126.32	6.62

두 연구에서 영재아동은 모두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처리속도 지표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참여 영재아동의 지능이 광금주의 연구 참여 영재아동에 비해 높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영재아동을 K-WISC-Ⅲ의 지능지수가 130 이상인 아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참여 아동을 선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지능의 남·여 차이는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영재아동의 지능의 남·여 차이 비교

척도	남 (N=65)		여 (N=43)		t-값
	M	SD	M	SD	
언어성 지능	135.38	5.13	133.14	6.16	2.054*
동작성 지능	133.77	3.38	131.74	4.16	2.778**
전체 지능	137.20	2.31	135.09	3.20	3.726**
언어이해 지표	134.17	5.63	131.93	6.22	1.939
지각 조직지표	133.28	4.23	130.44	4.76	3.244**
주의집중 지표	130.66	6.43	131.12	8.00	.326
처리속도 지표	126.97	6.69	125.35	6.46	1.258

* $p < .05$, ** $p < .01$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지능의 남·여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1점, 언어성은 2.24점, 동작성 지능은 2.03점 정도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Slate(1998)의 연구(연구대상의 평균나이=9.8살, SD=2.9살)와 비교해 볼 때 점수의 차는 있으나 같은 패턴(연구결과를 보면 소년의 IQ는 소녀들보다 전체 IQ에서는 4.0점, 언어성 IQ에서는 5.7점, 동작성 IQ에서는 1.8점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을 보여주고 있다.

2. 측정 도구

가. K-WISC-III

Wechsler 지능검사는 David Wechsler가 1939년 제작한 개인용 지능검사로 제작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지능 검사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동적인 검사로서 임상장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 〈표 5〉는 K-WISC-III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신뢰도 계수가 .56-.82로 신뢰할 만하다 하겠다.

〈표 5〉 K-WISC-Ⅲ의 신뢰도 계수(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척도	신뢰도계수	소검사	신뢰도계수	소검사	신뢰도계수
전체 IQ	.84	상식	.81	빠진 곳 찾기	.70
언어성 IQ	.92	공통성	.72	차례 맞추기	.67
동작성 IQ	.68	산수	.74	모양 맞추기	.77
언어이해	.91	어휘	.82	토막 짜기	.56
지각조직	.82	이해	.72	기호 쓰기	.79
주의집중	.81	^a 숫자	.77	^a 미로	.58
처리속도	.51			^b 동형 찾기	.58

나.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

영재의 성격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MMPI 등의 정신병리를 보는데 적합한 검사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성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격검사도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5요인 성격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Mount와 Barrick(1995)은 5요인 성격검사에 대해 연구를 함에 있어 세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였다(유태용, 1999). 첫 번째 접근은 사전에 수록된 성격을 나타내는 특성들을 기초로 성격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다. 5개 요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도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Salgado, 1997). 두 번째 접근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론에 기초한 성격검사를 분석하여 성격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성격검사의 차원과 5요인과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5요인이 적절함을 밝혔다. 마지막 접근은 여러 출처(예, 자기보고, 배우자, 동료, 전문 평가자, 선생님, 상담자 등)로부터의 평정을 분석하여 성격의 차원을 알아내는 것인데 자기 또는 타인 평정으로부터도 일반적으로 5요인이 적절함이 밝혀졌다. McCrae와 Costa(1985, 1987)는 자기보고 형태의 검사지를 이용하거나 관찰자의 보고에 의한 평가를 하거나 혹은 동료에 의한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5개 요인이 성격구조를 가장 잘 설명함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sta와 McCrae(1988)는 6년 동안의 종단적 연구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와 배우자에 의한 성격평정을 통하여 동일한 5개 차원들이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성격요인임을 밝혔다. 이처럼 5요인 성격검사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Digman, 1990; McCrae와 Costa, 1988),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인성검사를 사용하여 영재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4〉 영재아동의 지능의 남·여 차이 비교

척도	남 (N=65)		여 (N=43)		t-값
	M	SD	M	SD	
언어성 지능	135.38	5.13	133.14	6.16	2.054*
동작성 지능	133.77	3.38	131.74	4.16	2.778**
전체 지능	137.20	2.31	135.09	3.20	3.726**
언어이해 지표	134.17	5.63	131.93	6.22	1.939
지각 조직지표	133.28	4.23	130.44	4.76	3.244**
주의집중 지표	130.66	6.43	131.12	8.00	.326
처리속도 지표	126.97	6.69	125.35	6.46	1.258

* $p < .05$, ** $p < .01$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동의 지능의 남·여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1점, 언어성은 2.24점, 동작성 지능은 2.03점 정도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Slate(1998)의 연구(연구대상의 평균나이=9.8살, SD=2.9살)와 비교해 볼 때 점수의 차는 있으나 같은 패턴(연구결과를 보면 소년의 IQ는 소녀들보다 전체 IQ에서는 4.0점, 언어성 IQ에서는 5.7점, 동작성 IQ에서는 1.8점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을 보여주고 있다.

2. 측정 도구

가. K-WISC-III

Wechsler 지능검사는 David Wechsler가 1939년 제작한 개인용 지능검사로 제작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지능 검사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동적인 검사로서 임상장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 〈표 5〉는 K-WISC-III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신뢰도 계수가 .56-.82로 신뢰할 만하다 하겠다.

〈표 5〉 K-WISC-Ⅲ의 신뢰도 계수(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척도	신뢰도계수	소검사	신뢰도계수	소검사	신뢰도계수
전체 IQ	.84	상식	.81	빠진 곳 찾기	.70
언어성 IQ	.92	공통성	.72	차례 맞추기	.67
동작성 IQ	.68	산수	.74	모양 맞추기	.77
언어이해	.91	어휘	.82	토막 짜기	.56
지각조직	.82	이해	.72	기호 쓰기	.79
주의집중	.81	^a 숫자	.77	^a 미로	.58
처리속도	.51			^b 동형 찾기	.58

나.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

영재의 성격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MMPI 등의 정신병리를 보는데 적합한 검사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성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격검사도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5요인 성격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Mount와 Barrick(1995)은 5요인 성격검사에 대해 연구를 함에 있어 세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였다(유태용, 1999). 첫 번째 접근은 사전에 수록된 성격을 나타내는 특성들을 기초로 성격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다. 5개 요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도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Salgado, 1997). 두 번째 접근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론에 기초한 성격검사를 분석하여 성격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성격검사의 차원과 5요인과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5요인이 적절함을 밝혔다. 마지막 접근은 여러 출처(예, 자기보고, 배우자, 동료, 전문 평가자, 선생님, 상담자 등)로부터의 평정을 분석하여 성격의 차원을 알아내는 것인데 자기 또는 타인 평정으로부터도 일반적으로 5요인이 적절함이 밝혀졌다. McCrae와 Costa(1985, 1987)는 자기보고 형태의 검사지를 이용하거나 관찰자의 보고에 의한 평가를 하거나 혹은 동료에 의한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5개 요인이 성격구조를 가장 잘 설명함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sta와 McCrae(1988)는 6년 동안의 종단적 연구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와 배우자에 의한 성격평정을 통하여 동일한 5개 차원들이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성격요인임을 밝혔다. 이처럼 5요인 성격검사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Digman, 1990; McCrae와 Costa, 1988),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인성검사를 사용하여 영재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는 Costa와 McCrae(1992)에 의해 제작된 NEO-PI-R에 기초하여, 안창규(2003)가 아동용 검사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 검사의 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며 각각에 대한 하위 요인이 4-7개씩 2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 당 8-9문항(창의성과 순응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9문항)으로 전체 문항은 210문항이다. 각 문항의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약간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이다.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척도별 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검사의 하위요인들은 요인분석에 의하여 5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안창규, 2003),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64- .85의 범위에 분포했다(박귀화, 2001).

<표 6>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의 5개 요인구조

요인구조	하 위 요 인			
신경증	불안 주의결핍	적대감 신체신경증	우울	수줍음(위축)
외향성	지배성	사교성	자극추구성	쾌활성
개방성	상상력	창의성	정서성	신체운동성
친화성	영리성	융통성	반응성(표현)	
성실성	온정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유능감	정연성	신중성	동조성
	탐구성(성취동기)			

본 연구에서 실시한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의 신뢰도는 .87- .91로 분포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36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 18부를 제외한 345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이용한 통계적인 방법은 먼저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통해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의 경우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을 $p < .05$, $p < .01$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

연구문제 중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성격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5요인에 대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

요인구조	영재아동(n =108)		일반아동(n =237)		t-값
	M	SD	M	SD	
신경증	107.22	23.03	120.01	26.18	4.364**
외향성	115.24	20.18	105.75	19.62	4.129**
개방성	191.13	24.08	177.29	29.04	4.320**
친화성	104.06	12.03	101.22	14.75	1.750
성실성	138.29	21.29	129.17	21.83	3.624**
불안	18.44	6.24	20.43	6.31	2.726**
적대감	19.83	5.69	21.16	5.69	2.016*
우울	13.79	4.42	17.23	6.01	5.970**
수줍음(위축)	18.36	5.25	20.42	5.66	3.207**
주의결핍	18.88	4.69	21.61	5.14	4.702**
신체신경증	17.93	6.23	19.15	5.68	1.742
지배성	27.43	6.26	24.00	5.76	4.983**
사교성	30.42	6.25	27.92	6.24	3.441**
자극추구성	27.39	5.77	26.81	5.63	.879
쾌활성	30.01	5.86	27.02	6.09	4.281**
상상력	29.58	5.53	26.49	6.57	4.543**
창의성	29.47	4.70	27.75	5.08	2.986**
정서성	24.88	5.71	24.48	5.36	.627
신체운동성	27.19	6.19	24.87	5.83	3.375**
영리성	28.40	4.94	24.94	5.46	5.616**
융통성	26.51	4.12	24.88	4.66	3.125**
반응성	25.09	4.42	23.89	5.39	2.183*
온정성	26.19	4.20	24.97	5.11	2.340*
솔직성	24.08	3.67	24.08	4.13	.002
이타성	27.47	5.27	25.96	5.07	2.533*
순응성	26.31	4.82	26.20	4.56	.191
유능감	27.27	5.76	25.29	5.77	2.953**
탐구성(성취동기)	28.49	5.11	26.94	5.48	2.486*
정연성	24.87	3.71	24.34	4.36	1.022
신중성	27.72	5.82	25.38	5.47	3.606**
동조성	29.94	5.80	27.18	5.61	4.183**

* $p < .05$, ** $p < .0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은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친화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영재아동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요인은 개방성과 신경증이였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신경증의 하위요인 중 불안, 적대감, 우울, 수줍음(위축), 주의결핍은 .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외향성의 하위요인 중 지배성, 사교성, 쾌활성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었다.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개방성의 하위요인 중 정서성을 제외한 상상력, 창의성, 신체운동성, 영리성, 융통성, 반응성 모두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었다. 개방성의 하위요인 중 영재아동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 특성은 영리성이고, 그 다음으로 상상력, 융통성, 창의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친화성의 하위요인 중 온정성, 이타성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솔직성과 순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성실성의 하위요인 중 유능감, 탐구성, 신중성, 동조성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 영재남아와 영재여아의 성격 특성의 차이

연구문제 중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 과 같다.

〈표 8〉 5요인에 대한 영재남아와 영재여아의 성격 특성의 차이

요인구조	영재남아(<i>n</i> =65)		영재여아(<i>n</i> =43)		<i>t</i> -값
	<i>M</i>	<i>SD</i>	<i>M</i>	<i>SD</i>	
신경증	109.25	23.74	104.16	21.85	1.124
외향성	112.94	20.52	118.72	19.38	1.465
개방성	191.54	23.53	190.51	25.16	.216
친화성	103.55	11.78	104.81	12.52	.531
성실성	138.31	21.85	138.26	20.66	.012
불안	18.85	6.78	17.81	5.34	.841
적대감	20.11	5.32	19.42	6.25	.615
우울	13.63	4.39	14.02	4.50	.450
수줍음(위축)	19.17	5.21	17.14	5.13	1.995*
주의결핍	19.00	4.67	18.70	4.76	.327
신체신경증	18.49	6.27	17.07	6.13	1.164
지배성	27.00	6.05	28.07	6.58	.868
사교성	30.09	6.37	30.91	6.09	.662
자극추구성	26.22	5.79	29.16	5.31	2.674**
쾌활성	29.63	6.01	30.58	5.65	.823
상상력	29.25	5.57	30.09	5.48	.778
창의성	30.18	4.79	28.40	4.40	1.962
정서성	24.26	5.98	25.81	5.21	1.389
신체운동성	27.35	6.56	26.95	5.67	.327
영리성	29.48	4.37	26.77	5.35	2.884**
융통성	26.09	3.96	27.14	4.32	1.298
반응성	24.92	4.18	25.35	4.79	.489

p* < .05, *p* < .01

영재여아와 영재남아의 경우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모두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신경증의 하위요인 중 수줍음(위축)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재남아는 영재 여아에 비해 신경증의 하위요인 중 수줍음(위축)이 높았다. 외향성의 하위요인 중 자극추구성이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재남아는 영재 여아에 비해 외향성의 하위요인 중 자극추구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개방성의 하위요인 중 영리성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영재남아가 영재 여아에 비해 개방성의 하위요인 중 영리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2. 논의

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은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친화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영재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신경증이 낮아 안정적이고, 사교성과 대인관계의 적응 정도가 높고, 지적인 면에서 개방적이며, 더 성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Ross, Canada와 Rausch(2002)의 연구와 관련하여 볼 때, 영재가 일반 아동보다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경증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Scholwinski와 Reynolds(1985), Davis와 Connell(1985), 정수자(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신경증의 하위요인 중 우울증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Baker(199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신경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영재의 평균점수가 일반아동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것은 영재가 일반아동보다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재의 외향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 Webb(1993)과 Silverman(1990)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Hollingworth(1939; Silverman, 1990), 송인섭 등(1995), Richardson과 Hanawalt(1943)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재아동의 높은 지배성으로 지지되었다. 외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 요인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의해 Belligworth(1930), Drake(1944), 홍문식(1992), 정수자(1997)의 연구결과가 지지되었다.

개방성에 대해서는 NES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60)의 결과와 Renzulli와 Hartman, Callahan(1978), Davis와 Rimm(1998)의 결과가 본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 Ehrler와 Evans(1999)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지능과 창조적 재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이 또한 지지되었다. Louis와 Lewis(1992), 김진희(1995)의 연구결과 또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창의성과 영리성이 뛰어나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arris(2004)는 지능과 개방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Block & Kreman, 1996; Holland, Dollinger, Holland, & MacDonald, 1995)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 또한 본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친화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재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애정을 표현하고 정이 많으며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어려움에 관심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겠다. Silverman(1994, 1998), Davis와 Rimm(1998), Walberg(1982)의 연구결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상반된다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있으므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실성은 개방성과 함께 영재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능감과 탐구성(성취동기)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Davis와 Connell(1985), 송인섭 등(1995), 배미란(1995), Renzulli et al.(1975), Colangelo(1991) 등의 연구를 지지한다.

나. 영재남아와 영재여아의 성격 특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 영재여아와 영재남아는 뚜렷한 성격 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 하위요인 중 영재여아의 수줍음(위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여아의 외향성이 높은 것과 함께 볼 때, 영재여아가 영재남아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향성의 경우는 Fox(1981), Tomlinson-Keasey와 Smith-Winberry(1983), 문정화 등(1993)의 연구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배미란(2002)의 연구결과는 신경증, 외향성의 경우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영재여아의 영리성이 영재남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고, 창의성 또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영재남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영재가 자신의 영재성을 판단할 때 남학생은 유전이나 능력에, 여학생은 노력에 귀인한다는 연구 결과(Birenbaum & Kraemer, 1995)와 비교, 연구해볼 만하다. 또 Bouffard, Boisvert, Vezeau(2002)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학교에서의 역할이나 성취에 중요하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이 학교시스템을 통해 성숙되고, 향상된다고 말하였다. 또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동안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능력에 대해 높게 인식하면 비록 또래 아동에 비해 능력이나 동기가 낮은 경우일지라도 성공적인 성취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ouffard et. al.(200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영재여아가 영재남아보다 '영리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는 feedback이 영재여아가 스스로의 능력에 회의를 품게 하고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신경증이 낮고 외향성과 개방성, 성실성이 유의미하게 높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나 적극성, 열정, 그리고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개방적인 사고와 높은 성취욕구와 유능감 등이 영재아동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개인 내적인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영재아동의 성취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재여아와 영재남아는 성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영재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재아동의 경우 대상을 K-WISC-III 검사 결과가 지능지수 130 이상인 아동으로 한정하여, 지능은 다소 낮으나 창의성이나 비지적 요인에서 영재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점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성격검사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선택함으로써 연구대상 외의 관찰자나 연구자가 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빠졌음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연구지역이 한정적이므로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과 제한점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에 맞추어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성격에 맞는 교수-학습모형의 개발은 영재의 더 높은 지적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재아동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는 영재교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Baker, Bridger, Evans(1998)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영재의 미성취에 대해 능력의 부족보다 오히려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재학생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연구(Weiner, 1994)와 높은 성취를 나타낸 학생과 미성취에서 회복된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에서의 성공에서 교사의 지원의 중요

성을 예증한다는 연구(Emerick, 1992)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영재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재교사가 이러한 영재의 성격특성을 이해한다면 영재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나 또래 집단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미성취 영재의 가족을 연구한 결과 Albert(1978)는 미성취 영재의 가족들 사이의 응집력이나 정서적 거리의 결핍을, Rimm(1986)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의견의 일치가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또 Rimm과 Lowe(1988)는 미성취 영재의 수행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예측할 수 없고, 기대와 나타난 행동에서 부모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영재 가족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심리적 가정환경을 만들어 영재가족 전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재의 발달은 영재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 뿐 아니라 외재적 요인(가정, 학교, 사회 등)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교육, 예방적 차원의 지도 및 상담 등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영재아동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이나 상담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영재의 학업 성취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영재의 잠재력을 크게 신장시키고, 발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희(1995). *영재 판별 평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문정화, 이승희(1993). 인물화 검사를 통한 영재아와 비영재아의 심리적 특성 비교. *영재 교육연구*, 2(1). 239-251.
- 배미란(2002). 5요인 인성모형에 기초한 과학영재들의 성격 연구. *연세교육연구*, 15(1). 55-75.
- 송인섭(1997). 남·여학생의 성격특성 비교분석. *교육학연구*, 35(4), 69-92.
- 송인섭·박정옥(1995). 지적능력에 따른 성격차원의 격차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9(2).
- 안창규 (1997). *5요인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부산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미간행 자료.
- 안창규(2003). *아동용 NEO성격검사의 해석과 활용*. 부산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미간행 자료.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9-101.
- 정수자(1997). 기관영재, 일반영재, 평재 집단간의 성격 차의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4(1).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3-116.
- 홍문식 (1992).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Baker J. A., Bridger R., & Evans K.(1998). Models of underachievement among gifted preadolescents: the role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factors. *Gifted Child Quarterly*, 42(1). 5-15.
- Baker, J. A.(199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cademically gif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39 (4). 218-223. 222.
- Birenbaum, M., & Kraemer, R.(1995). Gender and ethnic group differences in casu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in mathematics and language examin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3). 342-359.
- Bouffard, T., Boisvert, M., & Vezeau C.(2002). The illusion of incompetence and its correlate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31-46.
- Brown, S. W., & Yakimowski, M. E. (1987). Intelligence scores of gifted students

- on the WISC-R. *Gifted Child Quarterly*, 31. 130-134.
- Davis, G. A., & Rimm, S. B.(1998).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Allyn & Bacon Fishkin. 26-44.
- Davis, H., & Connell, J. P.(1985). The effect of aptitude and achievement status on the self-system. *Gifted child Quarterly*, 29(3), 131-136.
- Digman, J. M.(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 440.
- Ehrler D. J., & Evans, J. G.(1999). Extending big-five theory into childhoo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36(6). 451-458.
- Fishkin, A., & Kampsnider, J.(1996). Exploring the WISC-III as a measure of giftedness. *Roeper Review*, 18(3). 226-230.
- Fox, L. H.(1981). Identification of the academically gifted. *American Psychologist*, 36. 1103-1111.
- Griggs, S. A., & Dunn, R.(1985). Teaching and counseling gifted students with their learning style preferences: two case studies. *Gifted Child Today*. 40-43.
- Harris, J. A.(2004). Measured intelligence, achievement,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913-929.
- McCrae, R. R. & John, O. P.(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2). 175-215.
- Rimm, S., & Lowe, B.(1988). Family environments of underachieving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2(4). 353-359.
- Ross, S. R., Canada, K. E., Rausch. M. K.(2002). Self-handicapping and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ediation between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173-1184.
- Scholwinski, E., & Reynolds, C. R.(1985). Dimensions of anxiety among high I.Q.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29(3), 125-130.
- Silverman, L. K.(1993). The gifted individual. In L. K. Silverman (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3-28.

- Silverman, L. K.(1998). Through the lens of giftedness. *Academic Search Elite*, 20(3). 204-210.
- Tomlinson-Keasey, C., & Smith-Winberry, C.(1983). Educational strategies and personality outcomes of gifted and nongifted college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27(1). 35-41.
- Tong, J. & Yewchnk(1996). Self concept and sex-role orientation in gifted high school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0(1). 15-23.

Abstract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Gifted and Normal Children

Yu-mi, Kim

Chang-kyu, Ah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gifted and normal children and also to find out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gifted boys and gifted girls.

Three hundred and forty-five children(108 gifted children, 237 normal children), who were forth to sixth grade children, were taken the Children's NEO Personality Inventory(Big five traits and 17 face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ifted and the normal children. The gifted children have higher tendency of openness,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lower neuroticism than the normal children. There is no difference in agreeableness between the gifted and the normal children. In the subfactors(facets) of neuroticism, the gifted children have lower tendency of anxiety, hostility, depression, shyness, attention deficit than the normal children. In the subfactors of extraversion, the gifted children have higher tendency of assertiveness, gregariousness, cheerfulness than the normal children. In the subfactors of openness, the gifted children have higher tendency of fantasy, creativity, physical activity, high intellectual ability, flexibility, reactivity than the normal children. In the subfactors of agreeableness, the gifted were more warmth and altruism than the normal children. In the subfactors of conscientiousness, the gifted children have higher tendency of competence, achievement motivation, deliberation, dutifulness than the normal children.

2.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ifted girls and the gifted boys. In the subfactors of neuroticism the gifted boys have higher tendency of shyness than the gifted girls. In the of subfactors of extraversion, the gifted boys have lower tendency of sensation- seeking than the gifted girls. In the subfactors of openness, the gifted boys have higher tendency of intellectual ability than the gifted girls.

key words : The gifted, Big five-factor Personality, Gifted education, Gifted counseling.